

## 2011.02.21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2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“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 결과-치즈, 버터 등 할당관세 신규추진 및 분유·삼겹살 무관세 물량 증진 추진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## □ 우유 및 유제품 가격 안정

최근 구제역 등으로 신선우유 및 치즈·버터 등 유제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므로 가격 및 수급 안정대책 마련

○ 금년 원유 생산량은 구제역 등으로 평년보다 약 20만톤 감소한 약 190만톤으로 추정(농식품부).

※ 젖소 구제역 피해('10.11.28~'11.2.14) : 3.6만두 (총 사육두수 43만두의 8.4%)

○ 금년도 신선우유 수요량은 150만톤으로 금년 원유 생산량 190만톤을 신선우유로 우선 공급

※ 원유수요(만톤) : 213(신선우유 150 + 치즈·버터 등 유제품용 63)

○ 단, 유제품용으로 사용되는 원유 63만톤 중에서는 약 23만톤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, 유제품용 원유수요를 분유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

- 정부는 지난 1월말 분유 9천톤을 무관세로 수입한데 이어 추가로 금년 중 분유 무관세 물량을 2.1만톤 증량하여 총 3만톤을 무관세로 도입

- 분유는 원유무게의 10% 수준으로 분유 3만톤 도입시 원유 기준으로는 약 30만톤의 공급효과가 있어 예상되는 유제품용 부족수요를 보충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전망

○ 유제품인 치즈, 버터, 생크림, 유당, 전지조제 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하여 수입 확대

- 유제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조기에

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

○ 농식품부에서는 분유와 유제품이 최대한 빨리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업체 및 관세청 등 통관부처와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

## □ 치즈, 버터 등 할당관세 신규추진

구제역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완화하고,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대폭 증량

○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을 상반기 중 5만톤을 추가 증량

- 삼겹살 무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하여 상반기 중 총 6만톤의 삼겹살이 무관세로 수입 추진

※ 정부는 지난 1월 삼겹살 1만톤과 육가공용 5만톤에 대해 무관세를 이미 추진한 바 있음.

- 이는 평년의 연간 삼겹살 수입물량 11만톤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로 가격과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

※ 삼겹살 수입물량 : (08) 11.3만톤 (09)10.5만톤 (10)10.7만톤

- 가격 및 수입실적을 보아가면서 필요시 물량 추가증량 및 무관세의 하반기 이후 연장여부도 적극 검토

○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병아리, 계란분말(300톤, 10년 수입물량 2톤)을 무관세로 도입 추진

- 최근 한파로 인한 산란율 저하 등으로 계란가격 상승

- 금번 AI로 인한 산란계 매몰수는 전체 사육수의 2.1% 수준으로 단기적인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

○ 금년에 기 실시하고 있는 75개 품목을 고려할 경우 상반기 중 치즈, 버터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약 100여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실시하여 기

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고 수급안정 도모

### □ 농산물 물가안정 노력 강화

최근의 강원도지역 폭설로 지역적으로는 지역주민 생활불편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겨울철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지 않아 전체 농산물 수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

- 다만,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향후 봄철 채소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
- 봄철 채소류 재배면적 및 생산전망에 대한 조사와 관측을 토대로 겨울배추 수매·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, 봄배추 재배면적 확대, 필요시 수입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

## 주간농업·농촌동향 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

※ 본 자료는 지난 2월 16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“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### □ 개요

- 유통조사 대상
  - 과수묘목(3월)
  - 채소종자·씨감자(3~5월)
  - 김장채소 종자(8월)
  - 인터넷 유통종자(9월)
  - 벼씨종균(10월)
- 민원·제보에 의한 수시 조사 등 종자 생산·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

### □ 주요 내용

- 금년에는 무보증 씨감자 판매 및 무등록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농가, 판매처를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종자업체 단속 계획
  - 또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종자업 등록번호, 품종 신고번호 등 품질표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하여 무등록업체가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종자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
- 금년 하반기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유통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지난해 10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(7월)부터 시행

※ 관련법 :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(법무부)

→ 농림수산물부·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「종자 산업법」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(제5조 제42호, 제6조 제39호 신설)

→ 입법예고('10.10.21~11.10), 법제처심사('10.12.17)

○ 시중 유통 종자에 대한 품질검정을 강화하여 종자 유통관리에 한층 내실을 기할 방침

- 품종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**DNA 분자표지 기술을 이용한 품종진위 검정**을 매년 3개 작물씩 3년 주기로 실시기로 하고 올해에는 멜론·참외·무 유통품종에 대해 유전자검사 실시

※ 분자표지가 개발된 채소 9개 작물에 대해 품종진위 검정 추진